칼빈주의 바로 알기 ㅁㄹ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가이슬러) 1부

벧전3:13-15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변증은 영어로 apologetics,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변론 즉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확실함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 구원, 속죄 등 모든 주제 변증 필요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13-15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가장 큰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교회 내외부에서 칼빈주의 문제가 대두됨, 어쩔 수 없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가르쳐야 할 필요,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시리즈 시작,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강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요일에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왜 이런 주제의 강해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는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좋은 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다.

금요일 첫 번째 강해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나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들이 쓴 책과 기사를 인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나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오늘 (*) 노만 가이슬러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12년 전 쯤 강연, 누군가가 2년 전에 다시 올림, <u>가장 안전하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노만 가이슬러의 동영상 강연을 그대로 번역해서 전달할 것이다</u>. 원래는 1시간 9분, 영어는 양이 많고 또 빨리 말하기 때문에 오전에 1부(5대강령 2개), 오후에 2부(5대강령 3개)를 하려고 한다. 원본 영상의 링크를 올릴 테니 영어를 하는 사람은 보기 바란다. 이를 통해 변증이 어떤 것인가도 배우게 될 것이다.

노만 가이슬러

(*) Norman Geisler(1932-2019) 자타가 공인하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 신학대학교수, 10년간 댈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역임, 위키 백과 약 90여 권의 책, 조직신학(1,600쪽), 로마 카톨릭 주의 문제, 이단들,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등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책들을 저술함, 보통 1권이 4-500쪽, 칼빈주의 관련: Chosen But Free, 285쪽

유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감. (*) 2개의 줄에 사람들이 서 있다.

1. 오른쪽,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자들
2. 왼쪽, 자유 의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본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신봉자, 그래서 예정된 자들의 줄로 감, 앞으로 나감

천사가 물음, 왜 이 줄에 섰느냐?

그의 대답: 제가 보니 이 줄이 맞는 것 같이 여기를 선택해서(원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천사의 대답: 그러면 이 줄에 오면 안 된다. 저 줄로 가라. 그 줄은 네가 원해서 가는 줄이다.

그래서 그 줄로 감, 다시 앞으로 나감

천사가 물음, 왜 이 줄에 섰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그의 대답: 저 줄의 앞에 있는 천사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것은 유머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무조건적인 예정 즉 사람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예정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이 있다 즉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지난 450년 정도 성도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u>균형을 찾아야 한다</u>.

왜 이 강연을 하는가?

주후 1500년경,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들 지적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종교 개혁, 여기서 나온 것: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차이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프로테스탄트(침례교 포함) 내부의 문제: 칼빈주의자들과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문제

나는 양측에 속한 모든 분들을 존중한다.

모두가 경건한 분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믿는 분들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오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대신 속죄, 몸의 부활, 재림, 물론 두 부류 모두 위에서 말한 5가지 솔라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 즉 칼빈주의 5대 강령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왜? 오늘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를 믿지 않는 편에 서서 왜 내가 그것들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칼빈주의 5대강령

(*) 아름다운 꽃 튤립,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꽃 튤립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것이다. TULIP

(*) 칼빈주의 5대 강령은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T(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

U(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P(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견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문다.

오늘은 TULIP의 5글자로 표현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바와 내가 믿는 바를 대조해서 설명하려 한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극단적 칼빈주의(Hyper Calvinism)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자들을 뜻한다.

이제부터 나는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의 정의를 말하고 성경 구절들을 제시한 뒤 성경에 근거해서 왜 내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1. T(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

먼저 엡2:1을 읽도록 하겠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전적인 타락(Total depravity)을 설명한다. 2:1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죄성이 넘쳐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무능력

1-5절을 계속해서 읽겠다.

1-2절: 1.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5절: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1.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은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시체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 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
이들은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즉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 존 파이퍼, 맥아더 등
그들의 주장 요약: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도 결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
이들이 사용하는 지지 구절
고전2: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엡2:1-5와 고전2:14가 칼빈주의자들의 첫 번째 강령 즉 전적인 타락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전적인 타락 다시 요약: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다. 그 뒤에야 살아나게 된 사람은 비로소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어 쓰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다.
a.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다.
b.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 된다.
c.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인 타락의 핵심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다.
2, 가이슬러의 반박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자들의 전적인 타락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려 한다.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을 보라. 1-5절 그 뒤에 나오는 8절을 보자.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면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 믿음인가, 구원인가?
다시 8절을 보기 바란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 당연히 믿음이다.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거듭나는 일) 중생 즉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롬5;1을 보도록 하자.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여기서 칭의는 당연히 구원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칭의를 얻는다.
먼저 칭의를 얻은 뒤(구원을 받은 뒤, 다시 태어난 뒤) 이것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나는 철학을 가르친다.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가 있다(1596.3.31. ~ 1650.2.11.).
그의 주장: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말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틀린 말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 말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데카르트의 말과 비슷하다. 무언가 그럴듯한 데 실제로는 순서가 틀렸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먼저 구원받아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30-31을 보자.

30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 간수여,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라 믿을 수가 없으니 먼저 하나님이 너를 살려야 한다. 그 뒤에 믿을 수 있다."

다시 말한다: "그들은 먼저 네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였다.

구원과 관련된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을 찾아보라.

<u>항상 순서는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되어 있다</u>.

요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u>하나님이 먼저 죽어 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u>.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항상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살려놓아야만 그가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전도 차체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3. 죽었다는 말의 의미

자,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엡2:1, 믿지 않는 자들은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 맞는 말이다.

죽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전멸되었다. 소멸되었다. annihilation

2. 분리되었다. separation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특히 여기 엡2장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대언자 이사야 59:2

(*)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의 벽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은 육에서 분리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고후5:8,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죽은 것)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빌1:23, 이는 떠나서(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창35:18, (*) 라엘이 죽는 장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죽으려 할 때에)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u>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항상 분리를 뜻한다.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u>.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죽음을 영적인 소멸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죄들로 인해 죽으면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둥둥 떠다니는 시체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시체를 살려놓아야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4. 하나님의 형상 문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창9:6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창9: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창1:27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왜, 창9:6은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창9:6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3:9도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혀)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그러므로 불신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5. 타락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사건을 다시 살펴보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성경에 따라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다.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다.

창2:17,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의 죽음이 바로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즉 엡2:1의 죽음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3장을 보자.

3장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들은 듣고 판단한 뒤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부할 수 있다.

롬1:19가 무어라고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의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롬1:18을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8절: 이들은 죄인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자기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다. 억누른다.

(롬1:20)을 보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안다. 창조 세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성경이,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 알려주시는 진리를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분명히 이해하지 않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상하게 되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전2:14를 자세히 보기 바란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즉 구원받지 않는 자들 즉 본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단번 속죄 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무능력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결과 그는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성명이 말하는 팩트이다.

이런 지옥 정죄를 피하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환명하며 받아들여야만 한다.

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이유이다.

요약: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 있는 시체와 같다. 그들을 복음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살려놓아야 즉 그를 구원해야만 비로소 그 뒤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의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박멸을 말하지 않고 분리를 말한다.

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 결과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명백한 결론이다.

2. 무조건적인 선택(U unconditional election)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두 번째 것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TULIP,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즉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에를 들어 엡1장 3-6절을 보자.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일단 여기에는 성도들의 선택(4절 택하셨다)과 예정(5절)이라는 말이 분명히 여기 나온다.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고 또한 예정을 가르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의 예정 선택과 성경의 예정 선택은 큰 차이를 보인다.

1.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즉 선택하시는 데 조건이 없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도 전혀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2. 성경적 관점 혹은 조금 온건한 칼빈주의적 관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즉 선택하시는 데 조건이 없다. 즉 구원은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믿음이다.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겠다.

1. 칼빈주의자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는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즉 이들이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강제로 믿게 하신다. 즉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이고 사람 편에서도 무조건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자동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도록 하겠다. 29는 28절의 유명한 구절 다음에 나온다.

(*)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을 보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 그리고 그들을 예정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벧전1:2를 보도록 하자

벧전1;2,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적인 관점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아심에 따라 즉 복음이 전달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든지 안 믿는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1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치자. 이것은 나의 선함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영생)을 무료로 주신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주려는 선물 즉 1억 원을 받아야만 한다. 즉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엇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네 것이 된다. 네가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또 실제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이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셔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며(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며)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믿는 것은 우리의 몫(책임)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요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지 않는다.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롬6:23을 보자.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구절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선물은 내가 받아야만 선물이 된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결코 선물이 되지 않는다.

요1:10-13을 보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이 나온다.

13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혹은

의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 즉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12절을 보라.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엡2:8을 보도록 하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의 오류이다.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둘러댄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행위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궤변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1억 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일조하였는가?

나는 단순히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선물 1억 원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는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1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 그 사람을 100% 칭찬하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나?

"선물을 받아들였으니 너는 참 큰일을 했다. 일조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이런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 그를 구해 준다. 그 사람은 로프를 밑으로 내렸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그 로프를 붙잡았고 로프를 내린 사람이 모든 힘을 다해 구덩이에서 그를 끄집어 내어 그 사람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났다. 이런 구조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기여한 것이 있는가?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구조에 일조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민 것이 그의 구조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단독설과 협력설이라는 주제를 꺼낸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라도 만들어야만 그 구원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된다. 단독설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면 협력설이 되고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것이 행위이니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롬4:2-5를 보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첫째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측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는다.

결론

오늘 우리는 벧전3:13-15,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온유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것들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

교회 내외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번 보장)를 묻기에 오늘 일부를 대답하였다. 믿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

딤후3:14-15,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성경기록대로 믿고 배우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 변증할 수 있는 성경 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3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가이슬러) 2부

벧전3:13-15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변증은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확실함을 증명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유가 되고 있는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시리즈 시작, 금요일에는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좋은 점과 문제점, 오늘 오전에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가 노만 가이슬러의 영상 전달,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 칼빈주의 5대 강령은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T(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혹은 부패

U(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P(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오전에는 5대 강령의 1과 2,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살펴보았다. 오후에도 같은 제목으로, 3-5 강령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한다. 변증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3.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이제 나는 칼빈주의자들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것 즉 제한 속죄 교리의 오류에 대해 말하려 한다.

제한 속죄 정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속죄 값을 치르셨다.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를 지지한다.

나는 제한 속죄 교리를 믿는 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와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같은 말을 우리와 달리 읽는다.

즉 세상이나 모든 사람 등의 말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나 모든 사람으로 읽지 않고 '세상의 일'부나 '일부 사람들' 혹은 '세상의 모든 부류 사람들' 등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 요3:16을 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의 세상을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해석한다.

즉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것이다. (*) 영어로 '아이서지시스'(eisegesis)라고 한다.

자기 해석 혹은 자기의 사상을 본문에 개입시킨 해석

반면에 내 생각을 접어 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을 '엑서지시스'(exegesis)라고 한다. 이것은 '의미를 밝히는 것'이란 뜻인 헬라어 'ἐξήγησις'에서 유래한 말로서, 성경 본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이서지시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의 신학(자기 생각 혹은 배운 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요3:16-18을 보기 바란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제 롬5:6을 보도록 하겠다.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6절을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제 고후5:14-15를 보겠습니다.

14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u>모든 사람을 위해</u>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u>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u>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몇몇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였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컬러 안경을 쓰고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딤전2:4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u>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u>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몇몇 사람은 몇몇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든 그리스말이든 한국말이든 모든 사람을 말하지 결코 몇몇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기 바랍니다.

딤전2:6, 그분께서 <u>모든 사람을 위한</u>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벧후3:9를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u>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u>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벧후3: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오직 선택받은 자들인가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가요?

그러데 이상하게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은 여기의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니라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요일2: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세상은 결코 크리스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요?

16절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기의 세상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전체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아니 전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시고 그들만을 위해 속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의 속성이 그분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일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분은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저와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칼빈주의자는 전통적인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였고 저는 성경에 따라 온건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제한 속죄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였습니다. "요한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신 즉 알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너무나 주권이 강하여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자신이 원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게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전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만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소년들은 거기서 수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영하다가 익사하면 안 되므로 농부는 거기에 펜스를 두르고 (*) 접근 금지, 수영 금지 팻말을 크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동네 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트랙터를 멈춘 뒤 팔을 접었다가 그 팻말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애들아, 이 팻말에 무어라고 적혀 있냐? 접근 금지,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반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으니 빠져 죽어도 싸다." 그러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세 소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 농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이것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접근 금지, 선악과 먹는 것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

지금 세 명의 아이들이 죄를 지어 빠져 죽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이 세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명 로프를 던집니다. 그리고 로프를 당겨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성경의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도덕적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을 그분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단지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아이들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물에 빠진 세 소년 모두에게 구명 로프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들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 중 하나는 그 구명 로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게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명 로프를 던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눌러서 무조건 로프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이 시점에서 저는 칼빈주의의 4번째 강령인 I(Irresistible grace)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권능이 크시므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그 결과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1.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저항할 수 있는 보기 위하여 마2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논박하십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u>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u>.

마지막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며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 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 주고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사 그들 모두의 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u>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u>.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는 구애를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며 좋아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한다. 선물을 주고 꽃을 보낸다. “결혼해 주십시오.”

처녀의 말: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실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강제적으로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결혼을 해 달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그녀의 몸을 취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면서 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이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위대한 분리〉(Great divor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맨 마지막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된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 없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찾는 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다. 상대의 뜻을 존중할 뿐이다.

밀턴의 실낙원에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심오한 말이 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대답: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소원을 막지 않으신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배치된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하고 저항할 수 있음이 명확히 나와 있다.

여기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온다.

스데반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5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였습니다.

정확하게 resist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분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이다.

13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13, 20, 22-23절은 아주 강한 말씀들이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중에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9-11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이다. 일단 오늘은 가이슬러의 설명을 듣자.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처럼 보인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분처럼 보인다.

관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의 관주를 보기 바란다. 이 구절은 말라기 1장 2-3절에서 인용되었다.

2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과 에서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라기서는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에서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주님은 야곱이라는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특별히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 특별히 그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일들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한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국가를 미워하신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으므로

즉 이 구절은 첫째로 개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날 일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다.

3-4절을 보자.

3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즉 이것은 (1)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2)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시고, 에돔이라는 국가는 몇 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땅에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이다.

더욱이 여기의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

눅14:26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 여기의 미워하다는 무슨 말인가?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다. 덜 사랑한다는 말이다.

즉 예수님을 부모보다 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혹은 히브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창29장을 보기 바란다.

(*)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미움 받는 것의 의미를 보자.

30절: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칠 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그러므로 레아가 미움받았다는 말은 라헬보다 덜 사랑 받았다는 뜻이지 우리 보통 생각하는 미워한 것 즉 혐오한 것이 아니다.

개역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이상하게 번역하여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였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지난 몇 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사악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가 아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다.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로마서 9장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에서의 국가는 덜 사랑받는다는 뜻이다.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개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여기 로마서 9장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22절을 보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다.

22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고 말한다.
즉 그분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벧후3: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들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진노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였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 15절의 파라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일으키시고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다시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기 바란다. 신약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이 인용된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출애굽기의 파라오 부분을 보겠다.
(*) 여기에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는 데도 있고(4:21; 7:3; 7:13; 9:12 파라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데도 있다(7:14.22; 8:15, 19, 32, 9:7, 9:34).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말이 4:21에 가장 먼저 나오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강퍅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강퍅하게 하심이 나온다.

3:19를 보기 바란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u>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강퍅하게 하신다.</u>

사실 하나님은 파라오가 재앙들을 통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궁극적인 파멸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긴다.

우리가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퍅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퍅하게 만든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이다.

동일한 해가 있다. 그 해가 빛을 내면 초는 녹이고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 스펄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동일한 태양이다. 그런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의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다른 작용을 한다.

초처럼 그 빛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여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더 딱딱하게 만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녹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처럼 더 딱딱해집니다.

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5번째 항목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지속할 것이며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선택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적 복음에 따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로 생각하면 이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Eternal security)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구약의 율법)에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모두 다 안전하지만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분의 법(율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명의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일에는 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안식일을 법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 시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롬6: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갈5: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고후 3장을 보면 구약 시대 율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비행기를 탔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안식일)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게 되면 이것은 곧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매일 일어납니다. 그들도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딤후1:12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빌1: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요10: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롬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롬8:15,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맥아더가 주장하는 로드십 설베이션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것이다.

청교도들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신실했는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복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딤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1:12 때문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결론

오늘 저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왜 내가 성경을 믿는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즉 진실하게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어라고 하십니까? 마23: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과 같이 엄청난 규모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